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재개를 계속하는 가운데 뉴욕 주민에게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촉구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공사 및 법 집행 인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뉴욕 주민에게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차량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overnor's Traffic Safety Committee),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과 협력하여,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 노동자, 응급요원을 비롯해 차량 충돌 사고 및 도로 사고 지원 인력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재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통량이 늘어났고, 운전자들은 더욱 뉴욕의 도로 및 교량의 안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하는 인력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는 또한 응급요원, 고속도로 노동자, 견인 트럭 운전자, 경찰관 및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 전역의 지역에서 재개가 계속되며 더 많은 운전자가 도로를 이용하는 가운데, 저는 모든 운전자가 법을 준수하고 상식적으로 배려하여 용감한 남성과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작업 구간으로 향하는 표지판과 구간 내부에 있는 표지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와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작업 구간 안전 수칙은 다음 사이트 thruway.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 많은 유지 보수 및 작업 인원이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 근처에서 일합니다. 이들은 운전자의 의식과 참을성, 조심성에 안전을 맡기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혼란을 방지하고 운전 집중하며 속도를 줄이고 작업자들을 위해 차선을 양보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법에 달려 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에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가 작업 구역을 지나갈 때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근무하거나 도로 측의 사고에 대응할 때 유지 보수 노동자와 응급요원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이러한 노동자 및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근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차량관리부(DMV) 커미셔너이자 주지사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인 **Mark J.F. Schroed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도로 유지 및 개선을 맡은 인력 등 필수 노동자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뉴욕주 경찰 **Keith M. Corlett**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업 구역의 속도 제한은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바로 작업자와 고속도로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자가 공시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고, 작업 구역에서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응급요원과 고속도로 근로자를 위해 양보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도록 촉구합니다. 뉴욕주 순찰대(State Trooper)는 작업 구역 내과 주변의 눈에 띄는 곳에 주재하며, 속도를 높이거나 무모하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습니다."

작년 뉴욕주 교통부 기록에 따르면, 도로 건설 구역에서 총 521건의 충돌, 정비 구역에 67건의 침입, 부상자 50명 및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차선양보법(Move Over Law)은 2011년 도로에서 일하는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긴급 차량 및 위험 차량도 해당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법 집행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견인 트럭, 뉴욕주 전 지역의 도로를 따라 정차해야 하는 도로 공사 및 도로 유지보수 차량에 접근할 경우 주의 깊게 운전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안전하게 차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차선양보법은 오른쪽 갓길뿐만 아니라 도로의 양 차선 모두에 적용되며, 이를 처음 위반한 운전자는 벌점 2점과 최소 15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6년 7월 의용 소방대원 및 구급차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이전에는 법 집행 기관, 비상 차량 또는 위험 차량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파란색, 녹색, 빨간색, 흰색 또는 주황색 표시등을 점등한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이 확대된 법은 법 집행기관에 고속도로를 따라 일하는 근무요원들의 안전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법규 위반자들에게 벌칙을 주는 권한을 더 부여합니다. 운전자들은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경우, 도로의

갓길에서 일하는 차량들 및 인력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한 차선을 양보해야만 합니다. 2016년 11월 차선양보법은 쓰레기 및 재활용 트럭과 같은 위생 차량을 포함하도록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NYS DOT는 뉴욕주 재개가 계속되는 가운데 작업 구역 내 책임감 있는 운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소셜 미디어용 [공익광고](#)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속도 제한에 주의하고 운전자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를 없애며 작업 구역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